

무보수 명예직 인수위원 높은 인기 왜

정책결정 막강 영향력...향후 입지 확장

#지역 국립대 한 교수는 광주시와 전남도 인수위원회 양쪽에서 모두 러브콜을 받았다. 저울질하던 이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더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남도를 택했다. 20여 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에 있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일절 배제하면서 출범 전까지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유언비어는 물론 마찰·갈등의 소지까지 있었지만, 이 당선자가 단호하게 '업무 중심 인수위'로 방향을 잡으면서 반발 기세도 사라졌다는 후문이다.

개방직 공무원·각종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높아

청탁 줄이어 당선자 시·도정 걸림돌 될 수도

20여 일간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남도 인수위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민선 6기 광주·전남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축이자 향후 시·도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은 업무인계와 그 범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그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어 고차 사무실 임대와 집기 구매 비용만 지원받는다. 사무실은 식사비

등 운영비는 '알아서'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 자리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옛 관료 등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인수위원 자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의 발언은 하나하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에게 쉽고 강하게 각인될 수 있으며, 향후 입지도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각 25명, 33명의 인수위원은 소위 '입각'의 가능성도 높다.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당선자와 보조를 맞추는 방법을 터득해 위원회의 위원이나 개방직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각종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인수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소문을 들으면 축하 전화와 함께 '청탁'도 줄을 잇게 된다. 즉 인수위원들이 당선자들의 시·도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인수위원은 "반드시 하셔야 할 분들은 고사하거나 어렵사리 승낙하는데, 안 하셔야 할 분들은 경쟁적으로 로비를 벌인다"며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책이 있어야 이러한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책기조 설정·취임 준비...법적 근거는 없어

인수위원 지위·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따로 없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래 20년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직무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인수의 인력은 출퇴근 경비는 물론 식비도 자체 부담해야 한

다. 한마디로 자원봉사자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공무원이 인수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안전행정부 업무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매뉴얼에 따르면 인수위의 기능은 자치단체 현황 파악과 정책기조 설정, 취임행사 준비 등으로 돼 있다. 또 인수위가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 소속 기관에 자료와 협조 요구를 할 수 있다.

인수위원은 이에 따라 각 실·국에 자료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끔 자신이 맡은 분과나 분야를 벗어나기도 해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의 구성과 운영 규정이 없으며, 인수위원의 수, 위원회의 존속 기간, 위원의 임명권, 지원인력 파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 등에 대해서도 당선자별로 자체 결정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5~30명 선, 기초자치단체는 10~20명선으로 정

착된 분위기다. 인수위원 선발 기준도 없어 선거가 끝나고 '논공행상'의 하나로 인수위원이 거론될 정도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이와 관련 "업무 인계인수가 필요 없는 국회의원은 선거 후 상당 기간이 있지만 도리어 인계인수가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한 달도 주저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4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용구 위원, 광주·전남 양쪽 참여...광주 일정 차질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인수위원회에 중복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위원장이 전남지사 인수위 일정을 소화하느라 연락이 두절돼 광주시장 인수위 일정이 큰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선거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용구 위원장은 지난 8일 출발한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회에서 기획·행정분과 위원을 맡은 데 이어 9일 광주시장 직무인수위원회(회

광주준비위원회)에 인수위원장 특보를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윤 당선자의 핫라인으로 광주시(강진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와 모든 일정을 단독 조율해 왔으며, 인수위 구성 이후에도 같은 임무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6시40분까지 휴대전화를 꺼놓고 전남지사 인수위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바람에 광주시와의 연결이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이날 인수위 출범 이후 향후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하고, 오후 내내 일부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광주시의 인수위 일정 계획도 사실상 하루가 연기됐다.

김 위원장의 연락두절로 광주시장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도 이날 업무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애만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장 직무 인수위 관계자는 "그 동안 광주시와 모든 일정을 조율해온 김 위원장이 중요한 시기에 연락이 끊기는 바

람에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일(11일)부터는 일정대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저의)핫라인 역할이 끝났는데도, 선거캠프와 광주시에서 (끝나지 않았다고) 오해를 해 버린 일"이라며 "앞으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조언을 할 의향이 있으나, 광주시장 당선자의 인수위 등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014 문화전당 문화창조원 개관 세미나



'문화창조원 전략 세미나'가 1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암동 광주CGI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 전통 문화·자연관... 21세기형 콘텐츠로 선보인다

"전담 조직 없어 개관 차질"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이 아시아 전통문화와 예술, 자연관, 철학 등을 21세기 인문·예술·과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융·복합 전시·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의 이영철 예술감독은 10일 오후 광주CGI센터에서 '창조원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콘텐츠 종합 계획안을 구체화 한 중간 보고 성격으로, 문화창조원은 문화전당을 구성하고 있는 5개원 가운데 하나다.

콘텐츠 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창조원의 복합전시관은 천(天)·지(地)·인(人)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자연관, 아시아 문명, 동서문명의 교류 등 아시아를 재발견하는 전시로 구성된다. 주요 전시인 '황금황대'는 고대 황금유물의 발굴지를 연결한 이른바 황금벨트로 아시아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아시아의 생명선(문명발원지), 아시아의 근대성(사회체제), 중간시대(원주민들의 신화·설화) 등을 주제로 전시를 엮어낸다.

문화창조원의 창제작 센터에는 미디어·디자인, 기술·과학, 동시예술, 아시아연구 등 5개 LAB(laboratory·창작소) 시스템이 도입돼 첨단기술과 과학, 인문학 등이 어우러진 3D영상, 공연·전시, 미디어 등 문화콘텐츠를 창작, 제작하게 된다. 창제작센터는 인문,과학, 예술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작업에 참여하는 등 문화창조원들의 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문화상품을 만드는 창제작센터는 지역 문화예술인력을 선발한 뒤 전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등 지역문화인력 양성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광주CGI센터, 콘텐츠진흥원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 공동창작에 나선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담조직이 꾸려지지 않아 우려된다"며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사업에서 문화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기 보다 지나치게 정부행정 위주로 흐르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대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겨남 속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종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6.11.(수)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로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개발지 성공투자하는 비법공개
- 도시 재생사업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투자전략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

앞으로의 금융! 신택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택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골목상권자영업자 **추천** **특례보증대출 연 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